



우사인 볼트

리우서 ★·★ 기록 쏟아진다



D-10
육상 100m 볼트,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
현역 복귀 수영황제 펠프스, 메달 22개+ α
네이마르, 브라질 축구 첫 올림픽 금 도전

올림픽은 세계적 스포츠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더없는 기회다. 10일 앞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에도 지구상의 온갖 '별'들이 총출동한다. 스타가 있어야 보는 맛도 난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리우를 빛낼 선수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첫손에 꼽힌다. 볼트는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육상 남자 100m(9초58)와 200m(19초19) 세계 기록 보유자인 볼트는 리우올림픽에서 남자 100m, 200m, 400m 계주에 참가한다.

볼트는 최근 올 시즌 처음 뒀던 200m 경기이자 리우올림픽 전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한 뒤 "나는 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육상 선수인지 증명하고 싶어 한다. 리우에서도 얻고 싶은 게 많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도 빼놓을 수 없다. 펠프스는 15세이던 2000년 시드니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후 이번 리우 대회까지 5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거둔다. 펠프스는 통산 22개(금메달 18, 은메달 2, 동메달 2개)의 메달을 목에 걸어 올림픽 사상 개인 최다 메달 기록을 새로 썼다.

런던올림픽이 끝나고 은퇴한 펠프스는 지난 2014년 4월 현역 복귀를 선언, 또다시 메달 획득이 가능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펠프스는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리우 대회에서는 점영 100m·200m와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한다. 점영 100m와 개인혼영 200m는 4년 전 런던 대회에서 올림픽 3관

패를 이룬 종목이다. 17세였던 4년 전 런던에서 4관왕에 오른 '여자 펠프스' 미시 프랭클린(미국)도 눈여겨볼만하다.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우승하며 아시아 수영의 위상을 높인 쑨양(중국)의 2회 연속 2관왕 도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박태환과 쑨양을 제치고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4관왕에 오르며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하기노 고스케(일본)도 놓치지 말아야 할 선수다.

축구팬이라면 개최국 브라질의 골잡이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세계 축구의 지존이라는 명성 회복과 함께 '사상 첫 올림픽 제패'라는 브라질의 염원까지 네이마르의 어깨 위에 놓여 있는 점을 더하면 경기는 한층 볼만해진다.

미국의 비너스 윌리엄스·세리나 윌리엄스 자매가 호흡을 맞추는 테니스 여자복식도 놓치면 후회할 경기다.

올은 이미 2000년과 2008년, 2012년 등 세 차례 올림픽에서 여자복식 금메달을 합작한 바 있다. 세리나는 단식 2연패에도 도전한다.

내로라하는 골프 스타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부활했지만 애덤 스콧, 제이슨 데이(이상 호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조니 스피스(미국) 등 세계 톱랭커들을 볼 수 없다.

/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날짜	종목	선수
8월6일(토)	개막식	
7월(일)	사격	남자 10m 공기 권총 - 진중호
8월6일(토)	유도	남자 60kg급 - 김원진
8월7일(일)	양궁	남자 단체전 - 김우진, 구본찬, 이승윤
8월8일(월)	펜싱	여자 에페 - 신아람
8월9일(화)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 박태환
8월10일(수)	사격	남자 50m 권총 - 진중호
8월11일(목)	유도	남자 90kg급 - 권중환
8월12일(금)	양궁	여자 개인전 - 기보배, 최미선, 장혜진
8월13일(토)	양궁	남자 개인전 - 김우진, 구본찬, 이승윤
8월14일(일)	유도	남자 73kg급 - 안창림
8월15일(월)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 김진디
8월16일(화)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75kg급 - 김원우
8월17일(수)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59kg급 - 이정백
8월18일(목)	태권도	남자 58kg급 - 김태훈
8월19일(금)	태권도	남자 68kg급 - 이대훈
8월20일(토)	리듬체조	여자 결승 - 손연재
8월21일(일)	리듬체조	남자 결승 - 유한수

“러시아 리우행 종목별 연맹이 결정”

육상·역도연맹 “출전 불가”
체조연맹 “출전 금지 어렵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4일 러시아의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종목별 국제경기단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대회 개막까지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게 됐다.

IOC는 이날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정부 기관까지 개입한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 전면 금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러시아의 출전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8월 5일 개막하는 리우올림픽에서는 총 28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종목별로 러시아의 출전 금지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우선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이미 러시아 선수들의 이번 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이 결정은 지난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효력을 인정해 러시아 육상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출전이 어려워졌다.

또 육상 외에 국제역도연맹(IWF)도 6월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리우올림픽에도 나올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최근 국제조정연맹(FISA) 역시 “2011년 이후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샘플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8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발표한 보고서에 언급된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주요 종목별 국제경기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종목에서도 러시아 선수들을 출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24일 “체조의 경우 지난주 WADA 보고서에 러시아 사례가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출전을 막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이 전면 금지될 경우 리듬체조에 출전하는 손연재가 상당적인 이득을 볼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현실로 이어지기는 어렵게 된 셈이다. /연합뉴스

KBO·KIA, 프로답지 못했다

‘승부조작 대처’ 매뉴얼 없던 KIA
“감독은 모르고 있었다”→“일부 알았다” 말바꾸기
홍보실 사실 확인하느라 경기 뒷전…턱아웃 어수선

우왕좌왕 KBO
취재움직임에 경기 중 보도자료 급히 배포
4년전 박현준 사태 경험하고도 예방노력 없어
선수들간 공공연한 비밀…KBO·구단만 몰라

‘우왕좌왕’ 프로답지 못한 KIA 타이거즈와 한국야구위원회(KBO)다.

24일 프로야구를 즐기던 야구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KIA 좌완 유창식이 한화시절인 2014년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곳에서 휴일 야구를 즐기던 팬들은 경기 중에 들려온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손발이 맞지 않았던 KIA와 KBO가 경기들을 망친 모양새가 됐다.

KIA가 유창식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은 22일이다. 1군 선수단에 이어 뒤늦게 2군 선수단의 전수 조사가 이뤄지면서 유창식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이다. KIA는 23일 KBO에 이 내용을 알렸고, KBO는 해당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즉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발표는 24일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늦은 오후였다. 취재 움직임이 감지되자 KBO에서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갑작스런 KBO의 발표에 당황하기는 KIA도 마찬가지였다. 승부조작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한 KIA 관계자들

은 “감독은 (자진신고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다. “22일 당일 감독에게 자진신고 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렸다”고 말을 바꾸는 등 우왕좌왕했다.

홍보팀장, 운영팀장도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느라 경기는 뒷전이 됐다. 경기 중에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KIA 턱아웃도 어수선했다.

KIA는 “KBO에서 보안 유지를 당부했고, 선수 개인적인 부분의 내용이라 내부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었다. KBO에서 일괄적으로 하러다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하게 발표를 한 것 같다”고 KBO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KBO는 관계자는 “일괄 발표 계획은 없었다. 유창식의 사안에 대한 발표는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사건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경찰은 유창식의 승부조작 관련 정보를 입수해 내사를 했었다. 지난 7월 중순에는 KBO 관계자를 불러 야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내사 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KBO는 “수사 준비중이라면서 야구 종목의 특수성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경찰에 다

녀왔었다”며 “관련 사건이 있는냐고 물어봤는데 제보 정도의 수준이라고 알려줄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다가 이태양 사건이 터지면서 각 구단에 선수단 면담을 하라고 했고, 자진 신고가 들어왔다. 관련 사안인 것 같아서 내용을 경찰에 알렸다”고 언급했다.

자진신고로 감춰진 실체가 드러났지만 ‘박현준 사태’를 경험하고도 KBO와 KIA를 포함한 각 구단은 승부조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이미 이태양의 이름이 언급됐었다. 또 다른 의혹을 받는 이름들도 있다. 선수들 사이에서 승부조작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또 승부조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선배를 가장한 브로커의 전화를 받은 선수들도 있다. 하지만 KBO와 KIA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설마’하다가 다시 한번 승부조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이다.

KBO는 “정보가 있었으면 구단이나 KBO에 신고를 해야 정보가 되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속지 되지 못했다. 구단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으면 조사를 의뢰했을 것이다”며 “암



유창식

행 감찰, 조사위원회, 경기장에서 모니터링, 경기 후 모니터링, 문제 생긴 경기 즉각 포착 등 더 발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KIA도 “(브로커 접근 등) 내용이 있다면 더 확인하고 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KIA와 KBO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꾸준한 모니터링 등 적극적으로 프로다운 자세로 승부조작에 대처해야 한다. 고요한 내부와 달리 외부에 부는 찬바람이 심상치 않다.
 /김지우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교체 출전 3경기만에 안타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교체 출전해 3경기 만에 안타를 생산했다.

강정호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경기에서 5-4로 앞선 8회초 3루 대수비로 교체 출전했다.

강정호는 무사 1루에서 외야로 빠질 뻔한 토미 조제프의 땅볼 타구를 백핸드 캐치로 잡아 2루로 정확히 송고해 아웃카운트를 추가했다.

강정호는 8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헥터 네리스의 5구째 시속 152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지난 21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3경기 만에 나온 안타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36에서 0.240(183타수 44안타)으로 올랐다.

후속타자 조시 헤리슨이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경기는 1시간 30분 넘게 중단됐다가 속개됐다.

엘리아스 디아즈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강정호는 진투하지 못했다.

피츠버그는 9회초를 무실점으로 막고 5-4로 승리했다.

앞서 피츠버그는 4-4로 맞선 7회말 애덤 프레이저의 우월 솔로포로 승기를 잡았다. 피츠버그의 시즌 성적은 51승 47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다. /연합뉴스